흡한ㆍ속건 기능과 땀 견뢰도

“흡한ㆍ속건” 기능이 처음으로 발표되었을 때에는, 섬유가 수분이나 땀을 빨아들이는 기능은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흡한”이나 “흡수”는 대체로 비슷한 기능인 것이며, 섬유에서 수분을 빨리 밀어내는 “속건” 기능은 상반된 기능이므로 이 두 가지 기능을 섬유가 갖고 있다는 말에는 반신 반의로 느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흡한ㆍ속건” 기능을 가진 섬유 소재들을 많이 선전하고 있어 상식화된 기능이 되고 있다.

고령자 요양 시설에서 고령자의 베갯잇을 보면, 많이 흘리는 땀을 흔적도 없이 말끔히 빨아들여 베갯잇이 보송보송하게 마른 상태인데, 이러한 현상은 면의 5배 이상이나 물을 빨아들이는 아크릴 소재를 베갯잇의 뒷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분이 대부분인 땀을 잘 빨아들인다는 것은 수분을 잘 빨아들이는 기능을 뜻하고 있지만 수분 외의 땀 분비물까지 빨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즉, 땀 분비물은 섬유 속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섬유의 표면에 누적된다.

그런데 염기 아미노산인 히스티딘 등의 아미노산이 누적되면, 염색물의 색을 퇴색 또는 변색시키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땀ㆍ일광 복합 견뢰도의 문제가 있다.

베갯잇의 경우, 보송보송할 정도로 땀을 잘 빨아들인다는 것은 세탁 횟수를 줄일 수 있겠지만, 땀 분비물인 아미노산이 베갯잇에 누적되어 땀ㆍ일광

복합 견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방지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흡한ㆍ속건"은 베갯잇이 깨끗하여 사용자에게 쾌적감을 줄 수 있어야 하므로 세탁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으며, 염색물이 빨리 탈색하거나 변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에 잘 녹는 땀 분비물은 자주 물로 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